

통계청,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 주제: 삶의 질 측정, 걸어온 10년과 걸어갈 10년
- 지난 10년의 삶의 질 측정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도전과제를 논의
- 향후 삶의 질 측정 분야에서 다뤄야 할 쟁점과 방향을 공유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6월 20일(목) 대전 통계센터에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개최한다.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은 ‘삶의 질’ 측정과 정책 활용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부처,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연구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포럼 개최 10주년을 맞아, ‘삶의 질 측정, 걸어온 10년과 걸어갈 10년’을 주제로, 지난 10년간 삶의 질 측정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삶의 질 측정 분야에서의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조 강연은 “국내외 삶의 질 측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국제 동향과 관련하여 지난 20년간의 OECD 웰빙 측정 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OECD WISE 센터(Carrie Exton 부국장)에서 ‘OECD 웰빙 측정: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발표한다. 우리나라의 측정 사례는 연세대 한준 교수(한국삶의질학회장)가 지난 10년간의 우리 사회 삶의 질 측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삶의 질 지표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삶의 질 측정의 배경,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다.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삶의 질 측정에서의 도전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사회변화를 반영한 삶의 질 측정과 작성 결과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 방안

을 다룬다. 또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뤄나가야 할 도전과제 등에 대해서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기관의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주제세션은 “**삶의 질 측정 및 연구 현황과 활용사례**”를 주제로 우리 사회의 삶의 질 연구 동향과 측정 결과, 정책적 활용에 대해서 논의한다. 2000년 이후 국내의 삶의 질 연구 동향과 행복 측정결과를 보여주는 ‘**지난 20년간 삶의 질 연구동향**(심수진 사무관, 통계개발원)’, ‘**한국인의 행복 조사 분석 결과와 시사점**(허중호 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발표와 지역별 삶의 질 작성과 정책활용 사례로 도시 지역을 대표하는 ‘**서울서베이 20년의 역사와 정책적 기여**(변미리 본부장, 서울연구원)’, 농촌 지역의 삶의 질 작성 사례인 ‘**농어촌 삶의 질 지표 지수 측정 및 활용**(김태완 선임연구위원)’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삶의 질 측정 분야에서 앞으로 다뤄야 할 쟁점과 주제를 폭넓게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오늘의 논의가 국민 삶의 질 측정에 반영되어 장기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포럼은 대면행사와 온라인 중계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홈페이지(kostatforum.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자유롭게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포럼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발표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붙임1]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요

[붙임2] 주요 발표내용

담당 부서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책임자	실 장	최바울 (042-366-7301)
		담당자	사무관	심수진 (042-366-7315)



붙임1 포럼 개요

- 주 제 : 삶의 질 측정, 걸어온 10년과 걸어갈 10년
- 주 최 :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삶의질학회
- 일시 및 장소 : 2024. 6. 20.(목) 13:30~17:30, 대전 통계센터 국제회의실
-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www.kostatforum.kr)
- 프로그램

시간	주제 및 발표 내용		발표 및 좌장
13:00~13:30	등록		
13:30~13:40	개회사		이형일 통계청장
	축사		한 준 한국삶의질학회장
13:40~14:20	기조강연 국내외 삶의 질 측정 성과와 향후 과제		
	강연 1	OECD 웰빙 측정: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OECD Well-being Measurement: past, present and future	Carrie Exton(OECD WISE 센터)
	강연 2	삶의 질 측정의 배경, 성과와 과제	한 준 교수(연세대학교)
14:20~15:20	좌담회 삶의 질 측정에서의 도전과제와 방향		좌장: 이재열 교수(서울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준 교수(연세대학교) · 이희길 소장(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 · 변미리 본부장(서울연구원) · 정해식 원장(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5:20~15:40	휴식		
15:40~17:30	주제발표 삶의 질 측정 및 연구 현황과 활용사례		좌장: 유성렬 교수(백석대학교)
	발표1	지난 20년간 삶의 질 연구동향	심수진 사무관 (통계개발원)
	발표2	“한국인의 행복 조사” 분석 결과와 시사점	허종호 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발표3	서울서베이 20년의 역사와 정책적 기여	변미리 본부장 (서울연구원)
	발표4	농어촌 삶의 질 지표 지수 측정 및 활용	김태완 선임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종합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교준 교수(고려대학교) · 김성아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바울 실장(통계개발원) 	

□ 기초강연 : 국내외 삶의 질 측정 성과와 향후 과제

‘OECD 웰빙 측정: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OECD Well-being Measurement: past, present and future, Carrie Exton, OECD WISE 센터)’에서는 지난 20년간 OECD 세계포럼을 시작으로 사회발전 측정을 위한 웰빙 측정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웰빙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및 지표 개편 과정, 국가간 비교를 위한 국제적인 측정 권고안 작성과 함께 국가간 측정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최근의 노력을 설명한다. 또한 한국의 웰빙 측정 결과와 함께 앞으로 웰빙 측정 분야에서 다뤄야 할 주제와 아시아 지역에서의 도전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삶의 질 측정의 배경, 성과와 과제(한준 교수, 연세대학교)’에서는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작성배경, 그간의 작성경과와 주요 결과를 보여준다. 정책적 활용 제고를 위한 인구집단별, 지역별로 세분화된 삶의 질 측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책적 활용이 저조하다. 향후 삶의 질 측정은 체감 현실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 격차 및 결핍 관련 지표를 보완하는 것, 그리고 인구집단이나 지역별 지표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정책적 환류 및 활용을 높이는 것이 주된 과제이다.

□ 주제세션 : 삶의 질 측정 및 연구 현황과 활용사례

‘지난 20년간 삶의 질 연구동향(심수진 사무관)’에서는 지난 20년간 국내외 삶의 질 관련 연구동향을 시기별, 생애주기별 및 주제별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2000년 이후 Beyond GDP,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삶의 질 및 행복’ 관련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히, 2015년 이후 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베이비부머·노인 삶의 질, 코로나-19에 따른 삶의 질 변화, 청년 삶의 질 등 취약 집단에 대한 삶의 질 연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삶의 질 지표 개편 및 정책 대상별 삶의 질 제고 정책 마련의 주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의 행복 조사 분석 결과와 시사점**(허종호 연구위원)’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의 작성목적과 분석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를 통해 ① 한국인의 행복 수준 및 불평등 크기를 추적하고, ② 다양한 사회 현상을 예측하며 ③ 행복 수준과 불평등을 결정하는 다양한 결정요인을 밝히고, ④ 국민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 발굴에 활용하고자 한다. “한국인의 행복조사”는 「OECD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조사로 국제 비교가 가능하며, 일반조사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일상재구성을 통해 행복을 측정하고 있다.

‘**서울서베이 20년의 역사와 정책적 기여**(변미리 선임연구위원)’에서는 서울서베이의 20년간 작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서베이는 시정 운영의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정책지표를 개발하고 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개발을 하는 의사결정지원체계의 일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체계인 서울서베이는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시민의 삶을 시계열적으로 측정하면서 동시에 정책 변화와 정책 성과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매년 사회적 이슈를 발굴하여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다.

‘**농어촌 삶의 질 지표 지수 측정 및 활용**(김태완 선임연구위원)’에서는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효율적·협력적 정책 추진의 기틀 마련 추진을 위해, 두 차례 연구를 통해 농어촌 삶의 질 지표 검토·개선, 운영 체계 구축안 및 과제 발굴 등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경제, 보건·복지, 환경·안전, 문화·공동체, 지역회복의 5개 영역별로 4개의 지표를 갖추고 있어 총 20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촌 삶의 질 지수 발표와 현행화를 통해 농어촌 삶의 질 제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